

외식물가 고공행진... '공깃밥 1000원' 깨졌다

광주 두 달째 3%대·전남 2%대 상승... 전국 평균 웃돌아

"값 인상에 오던 손님마저 끌길라" 음식점들 전전공공

광주·전남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7개월 연속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타격 속에서 오르는 식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음식 값 인상을 두고 전전공공하고 있다.

광주 외식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오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2.1%)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 외식물가가 3%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5월(3.7%) 이후 3년 만이다.

전남지역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며 지난 3월부터 2%대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9개 품목에 대한 외식물가를 조사해보니 지난달 광주는 26개, 전남은 32개가 전

년보다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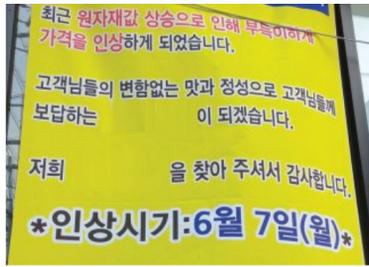
광주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외식비는 구내식당 식사비(11.9%)와 갈비탕(11.5%)이었고, 전남에서는 쇠고기 외식물가가 10.2% 상승했다.

지난달 지역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광주 11.6%·전남 9.2% 오르는 등 1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도 7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수년째 불문율처럼 지켜졌던 공깃밥 가격 1000원도 깨지는 모양새다.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80kg)은 22만 3612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18만9764원)보다 17.8%(3만3848원) 올랐다.

쌀값이 전년동월비 10%대 상승률을 보인지는 지난해 10월(14.3%) 이후 9개월 연속이다. 지난해 역대 가장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일조 시간이 줄고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작황 부진으로 쌀 생산량



광주·전남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일부 식당이 공깃밥 가격을 1500원으로 올리는 등 외식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부음밥	3,000
후식냉면	4,000
후식잔치국수	4,000
공기밥	1,500
소주	4,500
맥주	4,500
음료수	2,000
녹차캔	1,000
복분자	12,000
막걸리	4,000

이 줄어든 탓이다.

한국외식업협회 광주지회회는 지역 1만8000개 음식점 가운데 2000곳이 영업을 쉬거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회에서는 1만 20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상현 광주지회 부장은 "공깃밥 가격 1000원은 물가 상승과 농민들의 맘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만 단골 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음식점들은 가격 인상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식 수요가 즉석 식품, 가정간편식, 배달 음식 등으로 몰리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영난에 부딪히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완화되는 거리두기 지침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식당 이용객들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요 도시에서 운행하는 우버 차량 중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우버와 파트너십... 유럽 전기차 보급 확대 나서

기아가 글로벌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손잡고 유럽 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기아는 니로 EV(사진) 등으로 구성된 자사 전기차 특별 구매혜택을 유럽 내 우버 드라이버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아는 유럽 약 20개국의 우버 드라이버에게 전

기차를 공급하며 우버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아는 지난해 1월 중장기 전략인 '플랜 S'를 발표하며 전기차 사업 체제로 전환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연간 88만대 이상의 전기를 판매

해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버는 2025년까지 10만대 이상의 전기를 운 영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런던,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브뤼셀, 마드리드, 리스본 등 유럽 7개

주요 도시에서 운행하는 우버 차량 중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수칙 지키기를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어린이 보호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통안전 슬로건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에쓰오일 캐릭터 '구도일'의 지목을 받은 금호타이어의 캐릭터 '또로'와 '로로'는 공식 SNS 채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엑스타TV에 '1단범출, 2쪽저쪽, 3초동안, 4교예방' 슬로건을 공유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다음 캠페인 주자로 '보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보오TV'를 지목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농가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직원 20여 명은 지난 15일 구례 매실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78.68 (+20.05)
↑ 코스닥	998.49 (+1.12)
↓ 금리(국고채 3년)	1.286 (-0.021)
↑ 환율(USD)	1117.20 (+0.20)

코스피 사흘째 신기록

코스피가 사흘째 최고가로 마감했다.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0.05포인트(0.62%) 오른 3278.68로 마쳤다. 사흘 연속 증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중 한때 3281.96까지 오르며 지난 1월 11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3266.23)도 잡아차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30억원, 443억원을 순매수하며 사흘만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연기금 등도 50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829억원을 순매도했다. 거래량은 22억9730만주, 거래대금은 15조 9765억원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12포인트(0.11%) 오른 998.49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57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과 기관은 각각 336억원, 280억원을 순매도했다. 거래량은 14억487만주, 거래대금은 8조 3094억원이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도저히 못해"

정부 강행에 중기 등 유감 표명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계도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2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영세기업은 인력난에 부딪혀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도저히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며 "초과근로 한도를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